

세계보건기구(WHO)의 국제분류에 대한 정보 공유 제11차 국제질병분류(ICD-11)의 소개 4부

<ICD-11 이행에 관한 우리나라 책임기관(Focal point)/2021.12.29.>

ICD-11 이행시 고려사항 및 국내 이행 일정(안)

WHO에서 제시한 ICD-11으로의 이행시 주요 고려사항과 우리나라의 일정(안)을 공유하고자 합니다.

* WHO 운영 국제보건분류 소개에 관한 인터넷 연결 주소 <https://www.who.int/standards/classifications>

**ICD: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

< WHO의 ICD-11 설계 목표 >

최신 의·과학 지식의 반영과 더불어 현대 정보 시스템과 호환 가능한 방식으로 건강에 관한 개념을 담을 수 있는 업데이트된 분류체계를 마련

< WHO의 ICD-11에 관한 전자지원도구 >

API, Browse, Coding Tool,
ICD-FiT(Field Implementation Tool)

1. ICD-11 전환 소요 예상 기간 (WHO)

ICD-10 체계를 기반으로 수정하여 사용 중인 국가*의 경우, ICD-11으로의 전환 기간은 약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. 그러나, 이는 국가의 보건으로 체계와 인프라, 번역 필요성과 인력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.

*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 3차-8차(1995년-2025년 시행): 제10차 국제질병분류(1990년-2019년) 기준 작성·고시

2. ICD-11 이행시 주요 고려사항 (WHO)

- **사망원인 코딩:** 사망원인별 사망률은 수년간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식으로 WHO에 보고되어왔다. ICD-11을 적용한 사망원인별 사망률의 최소 보고 요건은 스템 코드(Stem code)* 수준이다.

* 스템 코드(Stem code) 개념: 제11차 국제질병분류의 소개 2부(2021년 6월, 2쪽) 참고

- **질병이환 코딩:** 사망률과 대조적으로 질병이환에 관한 코딩은 국가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여 국가별 차이를 감안하고, 국제적으로 일관된 결과를 얻기 위한 보다 맞춤형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.

ICD-11을 적용한 질병이환율에 대한 최소 보고 요건은 주된 병태(Main condition)의 구분과 함께 스템 코드이다. ICD-11의 풍부한 콘텐츠가 가질 수 있는 통계적 이용 가능성이 완전하게 실현된 이상적인 상황이 된다면, 국제 보고에 스템 코드 이상 수준의 보다 구체적인 병태*에 대한 보고가 포함되도록 고도화 될 것이다. 전환 과정에서 ICD-10과 ICD-11의 'Dual coding'에 관한 연구를 통해 ICD-11의 완전성 등이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.

* 예: 확장 코드(Extend code)를 이용한 코드 조합 방식: 제11차 국제질병분류의 소개 2부(2021년 6월, 2쪽) 참고

- **자체평가:** ICD-11으로의 전환에 잠재적 장애요인을 파악하고, 필요한 예산과 인력, 이행(전환)까지의 소요 기간 추정이 중요하다.

* 주요 내용 ①ICD 이용 현황 ②ICD와 WHO의 국제보건분류 이용 현황 ③ICD-10의 변경 필요 부분
④ICD 관련 인프라 ⑤ICD-11 관련 이해관계자와 의사결정그룹 ⑥ICD-11 도입 시 이점
⑦ICD-11 이행 필요 비용 ⑧ICD-11 이행 위한 교육 수요 ⑨ICD-11 이행에 필요 절차

- **전환 중 기존 분류체계의 유지관리:** ICD-11이 완전하게 이행될 때까지 **최소 18개월** 동안은 기존 분류체계와 병행운동을 권장한다.

* 신·구분류체계 병행운영에 따른 주요 이점:

- ① 시계열 변화 요인 파악 ② 통계 보고의 안정성과 데이터의 연속성 확보 ③ 인력 필요성에 대한 의사결정
- ④ 신 분류체계에 대한 사용자 역량 확보 ⑤ 교육 규모 및 필요내용 파악 ⑥ 사용상의 문제점 사전 식별 등

- **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:**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전환의 출발점으로, **국가 수준에서 시작**되어야 하며, **분류 담당자, 의료 현장 종사자, 공급이 가능한 업체 등 광범위한 참여**를 이끌어 낼 필요성이 있고,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율 및 중앙집중형 전환 활동, 전환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정보 공유, 이미 이행 중인 국가와의 협력 등이 필요하므로 전문 인력 등으로 구성된 관련 기관을 지정하거나 국가 센터 마련을 권장한다.

- **전환 사업 관리와 전략적 계획 수립:** 전환 사업의 각 측면별 주요 담당자와 의사결정자를 지명하고, 사업 계획 수립과 감독, 자체평가에 따른 준비상태와 우선순위의 선정 등을 담당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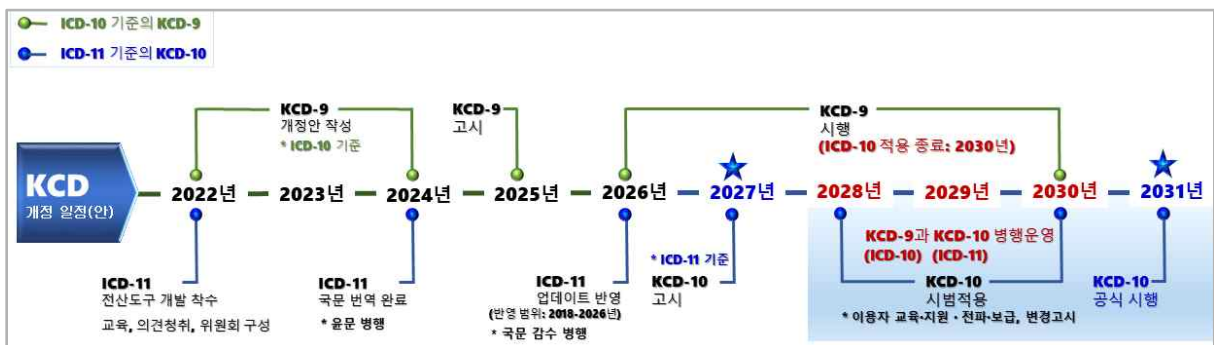
전략적 계획 수립은 요구사항과 이행 접근 방식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기반으로 하며, 모든 구성요소와 필요 인력에 대한 예산 계획을 포함한다. **전환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있는 경우, 초기에는 최소한의 이행만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일정을 재정립한다.**

3. 국내 ICD-11 이행 일정(안)

통계청은 국가통계 표준분류를 운영하는 주무부처이자 ICD-11 이행에 관한 책임기관(Focal point)으로, ICD-11 기준의 제10차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(KCD-10) 작성·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다.

통계청 훈령에 따라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의 개정 주기는 5년으로, 2021년부터 ICD-10 기준의 제8차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가 시행되고 있으며, 제9차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(KCD-9)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. 즉, ICD-10 기준의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 시행은 2030년을 끝으로 종료된다.

국제질병분류의 다양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의 운영 이후(1952년~) 최초로 전·후 개정판의 병행운영(3년간, 2028년-2030년)을 통해 국가통계작성과 국내 보건의로 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여, ICD-11의 국내 공식적 이행(2031년~)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.



[제9차 및 제10차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 병행운영 일정(안), 향후 의견수렴 등을 통한 변경 가능성 있음]

통계청은 2014년 ICD-11에 대한 정보집 작성 연구사업을 시작으로, 2017년부터 ICD-11 한국어판 작성과 이에 대한 현장시험을 수행 중에 있으며, 2022년부터 국내 보건의로 현장의 전산 환경에 분류체계가 탑재, 연계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.

또한, 지난 11월 통계청 보건분류 발전 합동 워크숍에 참가한 관련 전문가들의 ICD-11 국내 이행 시 고려 사항에 관한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, 2022년에는 ICD-11에 관한 교육과 함께, 분야별 위원회 구성,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사용자 의견을 청취하여 ICD-11의 국내 이행에 관한 추진 사업의 각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 할 예정이다. <끝>.

□ 참고자료

- 1) 국립국어원, 우리말샘(<https://opendict.korean.go.kr>)
- 2) 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위원회, 의학용어(<http://term.kma.org/>), 2020
- 3) 서경, ICD-11 개정과 국내 도입 고려사항
- 4) Nenard Friedrich Ivan Kostanjsek, WHO, ICD-11 tooling and implementation, 2021
- 5) WHO, ICD-11 for Mortality and Morbidity Statistics(<https://icd.who.int/browse11/l-m/en>), 2021
- 6) WHO, ICD-11 Implementation or Transition Guide_v105, 2019
- 7) WHO, ICD-11 Maintenance Platform(<https://icd.who.int/dev11/f/en#/>)
- 8) WHO, ICD-11 Reference Guide, 2019

□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분류에 대한 2021년 소식지 목록

<p>제11차 국제질병분류(ICD-11)의 소개 1부 (국제질병분류(ICD) 32년 만의 개정, 새로운 변화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WHO의 국제질병분류(ICD)에 관한 인터넷 주소 · ICD-11의 개발 배경 · ICD-11의 새로운 점 	<p>제11차 국제질병분류(ICD-11)의 소개 2부 (ICD-11의 최대 강점: 분류 확장성과 정보 호환성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3대 국제보건분류의 연계 작성·운영·활용(예시) · ICD-10과 ICD-11의 코드 구조 비교(예시) · ICD-10과 ICD-11의 코딩 비교(예시)
<p>제11차 국제질병분류(ICD-11)의 소개 3부 (Maintenance Platform과 ICD-11 MMS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Maintenance Platform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Foundation, Linearizations, Proposal · ICD-11 MMS(Mortality and Morbidity Statistics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Browse, Coding Tool, Special Views, Info 	<p>제11차 국제질병분류(ICD-11)의 소개 4부 (ICD-11 이행시 고려사항 및 국내 이행 일정(안)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WHO의 ICD-11 설계 목표와 전자지원도구 · ICD-11 전환 소요 예상 기간(WHO) · ICD-11 이행시 주요 고려사항(WHO) · 국내 ICD-11 이행 일정(안)

□ ICD-11 관련 교육을 포함한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분류에 관한 문의처

-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
 - ICD-11 이행에 관한 우리나라 책임기관(Focal point) ☎ 042-481-2204
 - 국제건강행위분류(ICHI) 기준의 한국건강행위분류 개발 담당 ☎ 042-481-2546
 -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(ICF) 기준의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 담당 ☎ 042-481-2507
- WHO 운영: ICD-11의 내용 개선 제안에 대한 안내 ☞ https://icd.who.int/dev11/Help/Get/proposal_main/en